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동서양의 문화혼종성을 주제로 한 도자 조형연구

A Study of Formative Base on Eastern and Western Cultural
Hybridity

2016년 8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김 지 예

동서양의 문화혼종성을 주제로 한 도자 조형연구

A Study of Formative Base on Eastern and Western Cultural
Hybridity

지도교수 최 병 건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7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김 지 예

김지예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7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목 차

요 약	i
표 목 차	ii
도 목 차	ii
작품목차	iii
I.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3
1. 다문화 시대의 특성	3
1) TCK(Third culture kids)의 개념	3
2) 문화 혼종성을 표현한 작가 및 작품연구	5
2. 동서양의 도자기 형태 및 특징	11
III. 작품 제작 및 해설	13
1. 작품계획	13
2. 제작과정	15
1) 원형(Shape) 제작	15
2) 석고형 몰드 제작	16
3) 소지	18
4) 성형	18
(1) 석고 몰드 주입	18
(2) 건조 및 접합	18
5) Underglazed Pencil	19
(1) 시판 제품	19
(2) 제작 및 실험	20
6) 장식	23
7) 연마	25
8) 소성	25

3. 작품 해설	26
IV. 결 론	39
참고문헌	40
ABSTRACT	42

요 약

제 목 : 동서양의 문화 혼종성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문화 혼종성은 대중 매체의 발달과 타 문화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생겨나는 현상으로, 최근 세계화와 인터넷의 발달은 개인의 의지 외에도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은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문화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중심이 모호해질 때 사람은 내면에서 문화의 충돌,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혼종성이란 주제는 사회학, 문학, 예술 등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야기되는 혼종성의 문화들 중 TCK (제3 문화의 아이들)로 한정하여 다루고 있으며 동서양의 문화를 형태와 표면장식으로 표현하여 문화적 충돌과 공존을 나타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문화의 혼종성과 TCK(제 3의 문화의 아이들)의 역사적 배경과 작가 및 작품을 조사하였다. 둘째, 두 문화는 도자기의 형태로 비유되기 때문에 동서양의 시대별 대표적인 도자기의 형태를 조사하여서 차용하였다. 셋째, 문화의 충돌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지각 충돌에 의해 움직이는 지층의 이미지와 지반과 용암의 충돌 이미지를 중심으로 패턴을 개발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기법과 재료의 고찰을 하였다. 넷째, 작품제작 및 해설에서는 작품계획, 제작과정, 작품해설로 분류하고 및 서술하였다. 작품계획은 동서양의 문화를 형태와 표면장식을 어떻게 변용 및 표현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하였다.

제작과정은 석고와 아크릴, 폼보드로 원형제작 A, B, C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석고 몰드제작, 소지, 성형과 세라믹 펜슬(Underglazed Pencil) 실험 및 제작과정으로 구분된다. 1차 소성된 형태는 표면장식하거나 2차 소성 후 연마과정으로 나누어지며 소성되는 과정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동서양의 문화를 도자기의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기하학 형태 속에 단면의 형태를 네가티브(Negative)와 포지티브(Positive)형식으로 결합하였다. 또한 단위체의 규칙적이고 불규칙적인 반복을 통해 운동성과 조화를 표현하였으며, 지각현상과 용암의 이미지들을 차용한 소묘기법(Scribble) 및 반복적인 곡선의 표면 장식기법은 최근 가속화되는 세계화에 따른 문화적 대립을 충돌, 반복, 공존의 조형언어로 상징화 할 수 있었다.

표 목 차

< 표 1 > 동서양 도자기 형태	12
< 표 2 > 동서양 도자기 형태 변용	14
< 표 3 > UnderGlazed Pencil	19
< 표 4 > UnderGlazed Pencil Base Data	20
< 표 5 > UnderGlazed Pencil 실험 I	20
< 표 6 > UnderGlazed Pencil 실험 II	21
< 표 7 > UnderGlazed Pencil 실험 III	22
< 표 8 > 3M 스폰지 사포	25

도 목 차

[도 1] Tete de Buddha	5
[도 2] 모리무라 야스마사 「Singing flowers」 1988	7
[도 3] 모리무라 야스마사 「Portrait - Van Gough」 1985	7
[도 4] 모리무라 야스마사 「Portrait - Futago」 1988	8
[도 5] 모리무라 야스마사 「Vermeer Pearl」 2007	8
[도 6] Ai Weiwei 「Han Dynasty Urn with Coca-cola」 1994	9
[도 7] Ai Weiwei 「Sun flower Seeds」 2011	9
[도 8] Sin-ying Ho 「Binary Code - The Link」 1994	10
[도 9] Sin-ying Ho 「Made in Postmodern Era No.1」 2008	10
[도 10] 도안 및 아크릴 컷팅, A형태 원형	15
[도 11] B형태 우드락, 석고 원형	15
[도 12] C형태 우드락, 석고 원형	16
[도 13] A형태 몰드	17
[도 14] B형태 몰드	17
[도 15] C형태 몰드	17
[도 16] 몰드 및 세라믹 펜슬 제작	22

[도 17] 용암의 이미지	23
[도 18] 용암이미지 및 변용 및 스케치	23
[도 19] 이미지 선택 및 스케치	24
[도 20] C.M.C 사용 및 Ceramic Pencil 그리는 과정	24

작품목차

[작품 1] Amphojar	26
[작품 2] Coexistence III	28
[작품 3] Coexistence IV-1	29
[작품 4] Coexistence IV-2	29
[작품 5] Coexistence V-1	31
[작품 6] Coexistence V-2	31
[작품 7] Culture A	34
[작품 8] Coexistence I	34
[작품 9] Culture B	37
[작품 10] Coexistence II	37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국가 간 경제적, 사회적 매체의 교류를 통해 문화 세계화를 이루고 있다. 인적 · 물적 자원의 교류가 보편화되면서 해외여행이나 유학, 해외 이주를 하는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한국에 귀국하는 자녀들의 수가 35,516명에 육박하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보면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귀국 자녀들이 성장기에 전혀 다른 두 문화를 체득하면서 어느 쪽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수가 사회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문화의 혼종성으로 인한 자아정체성의 혼란이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주제는 사회학자, 철학, 소설에서 끊임없는 화두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혼종성을 지닌, 적지 않은 수의 이론가들이 자신의 이중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왔다. 예를 들면,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재직 중인 문화 이론가 호미 바바(Hommi Bhabha, 1949~) 교수는 인도 태생으로 영국에서 석사 ·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학생들을 가르쳤었다. 문화연구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스튜어트 홀(Stuart Hall, 1932~2014)은 자메이카 태생이지만 대부분의 삶을 영국에서 보냈는데,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혼종 문화적인, 문화적 잡종¹⁾”으로 지칭하였다. 그 외에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1935~2003)는 팔레스타인 이지만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그는 스스로를 어디에 있든 간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인도의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역시 스스로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동양과 서양의 기묘한 혼합물”이라고 말했다.²⁾ 이와 같이 타 문화의 결합은 두 문화를 함께 접한 이들에게 그들 안에서 문화 간의 충돌을 낳게 되어 괴리감과 정체성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었던, 문화적 혼종성을 지닌 이론가들의 삶을 참고하여 TCK(제3 문화의 아이들)의 혼란과 괴리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 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혼란인 혼종성을 주제로 대립되는 두 문화를 동서양의 도

1) Chris Rojek, *Stuart Hall*, Cambridge: Polity, 2003, p.49에서 인용.

2) Edward Said, *Out of Place*, London: Granta, 1999. 김석희 옮김, 『에드워드 사이드 자서전』, 살림, 2001. 하랄네루의 말은 Robert J.C. Young, *Postcolonism: An Historical Introduction*, Oxford, 2001, p.348. 김택현 옮김, 『포스트식민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박종철출판사, 2005, p.61에서 인용.

자기로 표현하고, 문화 간의 충돌이 반복되다가 제3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TCK(Third Culture kid)로 융합되는 과정을 용암의 녹고 식는 과정인 자연의 지각현상으로 비유하려고 한다. 작품을 통해 제3의 문화인 TCK(Third Culture Kid)인 제3의 문화의 아이들의 두 문화의 충돌과 양쪽 문화에 소속되지 못하는 자아정체성의 괴리감을 조형 형태와 표면장식기법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양의 문화 혼종성의 범위는 TCK(Third Culture Kid)로 국한한다.

둘째, 동서양을 연결한 실크로드에서 문화 간의 교류를 나타낸 매개물로 비단과 도자기 등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동서양의 연결고리이자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로 동서양의 도자기의 형태로 제한한다.

셋째, 동서양의 도자기는 한국 도자기와 그리스 도기의 형태에서 차용하여 표현한다.

넷째, 동서양의 도자기의 형태를 가지고 충돌, 반복, 결합의 형태로 표현한다.

다섯째, 형태 위에 문화의 충돌과정을 용암과 지층의 이미지를 차용하여서 표면 장식기법으로 표현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양의 도자기의 대표적인 형태를 도출한다.

둘째, 동서양 도자기 형태는 규격 및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드레인 캐스팅 기법으로 제작한다.

셋째, 석고원형은 직선과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 폼보드, 우드락, 점토, 아크릴을 사용한다.

넷째, 1차 소성된 기물 위에 지각, 마그마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재해석하여 그린다.

다섯째, 표면장식은 단색으로 표현되며, 선의 강약과 소묘(Scribble)기법과 반복적인 곡선으로 명암을 표현한다.

여섯째, 다양한 선과 명암을 연출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세라믹 펜슬(Ceramic Pencil)과 직접 제작한 세라믹펜슬(Ceramic Pencil)을 같이 사용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시대의 특성

1) TCK(Third culture kid)의 개념

현대 사회는 문화적 다원주의, 문화 횡단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서 ‘문화’라는 개념은 태도, 사고방식, 가치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형이나 상징적인 것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접한 국가끼리의 전쟁과 가까운 거리의 교류로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졌기에 서로 유사한 문화권끼리 작은 차이를 수용·보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허나 근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교통수단과 매체가 발달하면서 전혀 다른 동서양의 문화가 충돌하고 진통을 거치면서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화 간의 교류로 생겨나는 현상을 혼합문화 또는 문화의 혼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문화와 혼종성의 결합인 ‘문화의 혼종성’은 과거에서부터 나타났다. 그 예로는 불교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생겨난 간다라 문화를 들 수 있다.³⁾ 또한,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의 융합 역시 그 예시 중 하나이다. 스페인의 신대륙 개척에서 시작된 두 문화의 ‘이중 교배’, ‘혼혈’ 문화는 현재에 와서는 별도의 문화적 혼합체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수 세기가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문화적 교류가 있어 그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아동기나 성장기의 일부를 타 문화권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한 아이들은 부모의 문화와 타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의 자녀들을 TCK(제3 문화의 아이들), ATCK(성인이 된 제3 문화의 아이들)라 지칭하게 된다.⁴⁾

TCK의 개념은 정체성이 형성되기 이전(적어도 18세 이전) 해외 생활을 시작한 조기 유학생, 외교관 자녀, 선교사 자녀, 주재원 자녀들을 TCK(Third culture kid)라고 할 수 있다.⁵⁾

그들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의 해외 근무, 유학을 다녀온 청

3) Third Culture Kid의 정의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Third_culture_kid, 2016.04.22

4) David.C. Pollak, Ruth.E.Van Reken, 박주영 옮김, 『제3문화의 아이들』, 비즈앤비즈 출판사, 2008, p.30~61참조.

5) 김향미, 『TCK의 특성 이론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해외 귀국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문화간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 2012, P.6.

소년이다. 이 유형의 청소년은 귀국 후 한국 생활 및 학교에 잘 적응하며 진로에 대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이나 지나치게 경쟁적인 학업 분위기, 대학 입시 등의 문제로 조기 유학을 결정한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외국현지적응에서 부모의 관리를 벗어나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누리지만 결국, 의사소통의 어려움, 학업결손, 정서적 결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귀국 후에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부적응 양상을 보이게 된다.⁶⁾

이 명칭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루스 유심(Ruth Useem)⁷⁾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으나, 개념은 데이비드 폴락(David Pollak)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부모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서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기 전,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질적인 문화권으로 이주한 자녀들은 제 나름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부모의 나라에서 익힌 문화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깔려 있기에, 그들이 새로운 문화를 소화하는 방식은 본래부터 태어나고 자란 그 문화의 구성원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TCK(Third Culture Kid)라 불리는 사회 집단을 이를 정도로 커지고, 이질적인 문화들을 융합시켜 제3의 문화를 만들어 내기까지 이르렀다.⁸⁾

TCK(Third Culture Kid)들은 이와 같이 대립되는 두 문화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적응력이 뛰어나서, 외교나 무역, 예술 등 여러 나라를 오가야 하는 직종의 일원으로써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혼합된 정체성을 적성으로 살려서 사회에 적응하는 긍정적인 케이스도 많은 반면, 내면에서 두 문화가 적절히 융합되지 못하고 혼란을 일으킨 끝에 사회에도 부적응하는 사례 역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심리학과 미술치료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TCK의 특성 이론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해외 귀국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문화 간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미술 집단치료를 함으로써 상담의 효과성을 높이고 타인과의 상호교류 능력의 발달로 이어지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상담일반 : 귀국청소년의 국내 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⁹⁾에서는 TCK 청소년들이 문화 차이로 인해 집단 내에서 겪는 갈등을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여 완화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6) 김향미,『TCK의 특성 이론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해외 귀국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문화간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 2012, p.8.

7) Ruth Useem은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인문학자로 TCK(제3문화의 아이들)이 처음 사용하였다.

8) 김향미,『TCK의 특성 이론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해외 귀국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문화간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 2012,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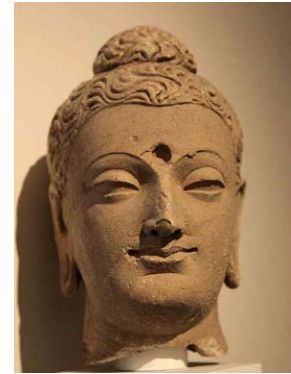
9) 이영선, 이동훈 『상담일반 : 귀국청소년의 국내 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Country Adjustment of Korea Adolescents Back from Studying Abroad』, 2009

김향미,『TCK의 특성 이론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해외 귀국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문화간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 2012, p.26.

고 하였다.

2) 문화 혼종성을 표현한 작가 및 작품연구

문화의 혼종성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문화 속의 언어, 건축,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되고 나타난다. 미술에서는 간다라미술과 아르떼 뽀뽀라르¹⁰⁾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간다라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문화가 결합하여 생긴 불교적 미술로 르네상스의 사실주의적인 양식으로 표현된다.



[도1] 두 문화의 결합이 새로운 문화 양식을 만들어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20세기의 작가 고갱, 디에고 리베라와 프리다 칼로의 작품들에서는 원시미술을 추앙하여 시대를 뛰어 넘은 미술사적 양식의 혼종이 나타났다.

[도 1] Tete de Buddha

여러 작가들은 문화의 혼종성을 혼합성, 정체성, 자유로운 소통 등으로 연결되어 표현하였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야스마사 모리무라는 오사카 출신의 일본 작가이다. 그는 스스로 유명 여배우의 이미지나 명화 속의 이미지로 분장한 것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데 이러한 형식을 ‘타블로 비방(Tableau Vivant 11)’ 이라고 한다. 야스마사 모리무라는 혼종성뿐만이 아니라 정체성(인종, 젠더, 문화)을 표현하면서 그의 작품에 사회 속 지배담론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서양사 시리즈> 및 <서양 미술사> 시리즈가 있다. 특히 <서양 미술사> 시리즈는 익숙한 서양 미술 속에 자신을 전유시킴으로써 일견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다는 ‘차이’를 주제로 다루었다.

이러한 작업을 작가 본인은 미술작품이 ‘되다(なる)’라고 규정하였다.¹²⁾ 그는 주로 흉내내기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주 작업방식으로 하게 된 것은 그의 학창시절부터 깔려있었다. 그는 일본의 미술 교육 커리큘럼에서 밀로의 비너스, 레오나르도

10) 아르떼 뽀뽀라르는 민족예술 또는 대중예술이라 불리며 미학,사회,정치,이데올로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 wikipedia.org

11) 타블로비방은 로마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사교문화에서 유행하는 문화였다. 초기에는 극적이고 선동적인 포즈를 포착을 통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이후 유희적인 놀이의 행태로 바뀌었다.

12) 모리무라는 미술에 가까이 가는 방식에 대해 3가지로 분류하여 이야기한다. 이는 ‘보다(見る)’와 ‘만들다(作る)’ 그리고 ‘알다(知る)’ 森村泰昌, 『美の教室、静聴せよ』, 理論社, 2007, pp. 21~23 참조.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서양미술사>시리즈 분석하기-문화적 ‘혼종성’을 통한 정체성 논의 2009, p.49

다빈치 등 서양 미술사의 기초를 접했다. 미술사에 대한 정의를 학습한 것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서양 미술사를 인식하게끔 한 것이다.¹³⁾ 그 결과, 이후 그가 작가로서 작품 주제로 서양 미술사를 선택하게 되었다.

[도 2, 3]은 유명한 서양 화가 반 고흐의 초상화(Portrait of Van Gogh)와 14송이 해바라기(Still Life: Vase with Fourteen Sunflowers)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도 3]은 서양 미술사 시리즈의 초기 작품이며, [도 2]는 1998년 제작되었다. 그는 이 작품들을 통해 현대 일본 사회에서 보편화된 서구의식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메이지 유신을 넘어 20세기 초 제국주의의 시대,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한발 앞서 개항하여 서구 사회의 문화를 전격적으로 수용하였고, 서양의 문물을 일본 문화에 빠르게 흡수했다. 이것은 사회를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로 파악할 때, 지배층의 양식을 모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가치임을 지배층이 피지배층에게 심어두었을 때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양태와 유사하다. 사회적 신분에 따라 집의 크기와 복식까지 법적으로 제약을 받으며 이를 어기면 강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근대 이전, 구시대의 전략이었다. 비록 가시적인 신분제는 근대 시민 혁명 이후 철폐되었을지라도 빈부 격차에서 생겨나는 경제적 계층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다. 다만 능력이 있다면 보다 위의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하층 계급에 미끼로 주어진 것이다. 그 가능성을 믿고 힘을 갖추어 자수성가하는 피지배층은 사회적으로 보면 일부에 불과하다. 이들이 계층을 극복했다는 증거로 상류층의 문화를 모방하면, 이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며 지배층의 질서에 편입시켜 준다. 그 결과 올라온 피지배자들에게 '자신은 승리자'라는 우월감을 심어주고 나아가 지배층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 서구 열강 국가들에게 침략 당했었거나 오랜 시간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의 문화에 침략국의 문화 양식이 짙게 남아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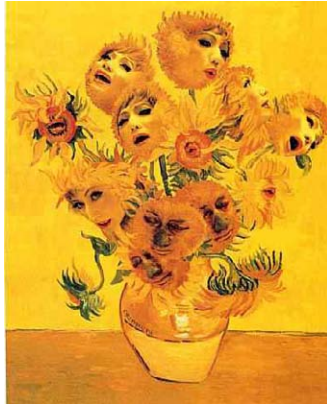
일본 역시 근대 개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서구 열강이 침략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서양 문물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렸던 중국, 조선과 달리, 일본은 당대의 지배자인 서구 열강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모방하여 이례적인 속도로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었다. 지배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모방한 것으로써 일본 스스로가 자신은 침략당한 자 · 피지배자가 아님을 세계에 내세운 것이다.

이렇게 성립된 근현대의 일본과 서양 문화의 혼종을 야스마사 모리무라는 그의 작

13) Yasumasa Morimusa. 『About My Work: My Fixation with Western Art History』Daughter and Art History, Aperture 2003, p.113.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서양미술사>시리즈 분석하기-문화적 '혼종성'을 통한 정체성 논의 2007, p.59. 참조.

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도 2] 모리무라 야스마사,
「Singing Flowers」, 1988



[도 3] 모리무라 야스마사,
「Portrait - Van Gough」, 1985

[도 2]에서는 해바라기 속의 밝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이 혼재해 있는 모습으로 문화의 수용에 대한 두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인이라는 선천적인 정체성을 서양 양식의 틀에 끼워 맞추므로써 생겨난 부조화와 어색함이 느껴진다. 타 문화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했을 때, 개인 내면에 온전하지 않은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 고흐의 초상화(Portrait of Van Gough)를 소재로 한 [도 3]은 얼핏 보기엔 원본과 차이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다. 그림 속의 인물이 서양인의 파란 눈이 아니라 검은 눈임을 눈치채고, 이목구비와 모자 및 옷가지의 세밀한 묘사를 찬찬히 원본과 비교하여 살펴보아야 비로소 이 작품이 반 고흐의 자화상이 아니라 동양인 남성을 묘사한 그림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도 2]에서는 두 문화가 완전히 결합되지는 못해 생겨난 위화감을 다룬 반면, [도 3]은 서양 문화의 틀에 완전히 녹아들어 서구화된 일본의 자화상을 상징적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겠다.

혼합된 정체성은 이후 [도 4, 5]에서도 나타난다. [도 2, 3]이 문화의 혼종성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을 주제로 한다면 [도 4, 5]에서는 정체성 안에 있는 인종과 성에 대한 주제까지 작품 내에서 보여준다.

[도 4, 5]는 <서양미술사의 딸들>이라는 시리즈에 포함된 것으로 마네의 올랭피아(Olympia)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The Girl With a Pearl Earring)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도 5]에서는 인종주의적인 시각을 반영하였다. 인종에 따라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시각을 전환하는 작업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다.

원본 올랭피아에서는 중심축에 누드의 여성이 누워있지만 [도 4]에서는 자신의 상체는 보여주고 하체를 가림으로서 양성적인 모습을 표현했다. [도 5]를 통해 미술사내에서 전통적으로 보이는 인종과 성의 대한 틀을 깨고자 하였다.¹⁴⁾



[도 4] 모리무라 야스마사,
「Portrait- Futago」, 1988



[도 5] 모리무라 야스마사,
「Vermeer Pearl」,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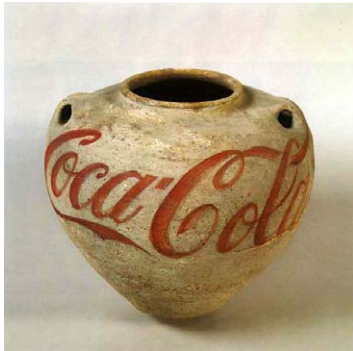
이처럼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자화상 작업들은 일본과 서양 문화의 혼종성을 주제로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는 사진의 특성인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을 문화와 성의 정체성과 혼란으로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서양미술사에서 보이는 정통적인 틀을 깨려고 하였다.

두 번째, 중국 현대 미술가 아이 웨이웨이는 ‘자유로운 소통의 힘’을 작품의 주요 주제로 다루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중국의 문화, 문화 정체성, 지역성 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 현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작가가 유년기에 겪은 억압과 탄압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은 비판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¹⁵⁾

14) 장순강, 『포스트모던 사진 자화상』 2013, p.71.

15) 김재석, 『아이웨이웨이 구속과 석방, 그 이후』, 『Art and Culture』 9월호, 2011. p.48.

박상미, 『아이웨이웨이 작품에 반영된 체제 비판적요소』 2014, P.193 참조.



[도 6] Ai Weiwei, 「Han Dynasty Urn with Coca-cola」, 1994

[도 7] Ai Weiwei, 「Sun flower Seeds」, 2011

[도 6]은 고대 중국의 도자기 형태 위에 현대 사회의 세계화와 자본주의 속성을 나타내는 기업 ‘Coca-Cola’의 로고를 아크릴로 그려서 표현하였다. 가장 대중적인 시점에서 보는 것을 예술로 승화한다는 착상은 앤디 워홀의 작품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와는 별개로 [도 6]의 형태적인 면에 주목하자면, 동양의 도자기 양식과 서양의 상징적 로고가 한 작품에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양 문화를 대변하는 요소가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융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도 7]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삼고 있다. 현대의 중화인민공화국, 약칭 중국은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 대륙 마지막 군주제 국가였던 청나라는 1911년 신해혁명으로 멸망하고 공화제를 채택한 중화민국이 세워졌다. 하지만 20세기 초 격동의 시대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한계를 지닌 중화민국 체제는 집권당인 국민당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중일전쟁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중국공산당과 4년간 내전을 치른 끝에 패배하여 짧은 역사에 막을 내렸다. 중국 본토를 차지한 중국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한다. 국공내전으로 피해해진 중국 내부의 불만을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개혁을 통해 경제를 일으키는 한편 반대파는 잔혹하게 탄압하여 사회주의 체제 아래 하나의 중국을 고집했다. 흑묘백묘론을 내세운 덩샤오핑 집권 이후에는 현대화 노선으로써 경제적인 면에서 일부 자본주의 요소를 수용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인민민주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변방 소수 민족까지 중국의 틀 안에 통합하길 고수하고 있다.

작가는 [도 7]을 자신의 유년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작가의 손에 한가득 담겨 있는 해바라기 씨는 중국 국민을 상징한다. 해바라기 꽃은 태양을 향해 피는 성질이 있는데, 현재의 중국 체제를 생각하면 중국 국민이 일괄적으로 바라볼 태양은 마오쩌둥의 사상을 이어받은 중국공산당뿐이다. 하지만 작품에서 해바라기 씨를 품은 작가는 빛이 오는 방향에 있는 광원을 등지고 있다. 태양, 즉 현재의 중국에 반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이 웨이웨이는 주로 현대 중국의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을 작품의 주제로써 다루고 있다. 다만 그의 작품 중 [도 6]과 같이 형태적으로 두 문화의 혼종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Sin-ying Ho는 홍콩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주한 중국 도예가이다. 그는 유학 생활을 통해 동서양의 문화를 동시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중국의 전통 도자기 형태에 서구적 이미지를 결합하는 조형 작품을 만들었다.



[도 8] Sin-ying Ho, 「Binary Code - The Link」, 1994

[도 9] Sin-ying Ho, 「Made in Postmodern Era Series No.1」, 2008

[도 9]는 다중 부분 몰드 기법을 적용하고 물레를 이용하여 각각의 도자기의 형태를 절단한 뒤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것은 도자기를 사람에 빗대어 전사된 상징, 단어 등이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물질적인 욕망, 희망, 과학기술의 변화를 대변하며 표현한 것이다.

Sin-ying Ho의 작품은 서로 다른 도자기의 형태를 결합시켜 문화적 혼종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다.

2. 동서양의 도자기 형태 및 특징

도자기의 형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동·서양의 도자기 양식을 비교하되 동양의 도자기는 한국, 서양의 도자기는 그리스를 대표로 논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도자기는 대표적으로 청자, 분청, 백자로 만들어 졌으며 비대칭의 형태와 자연스러운 모양이 특징이다. 반면 그리스의 도자기는 자기가 아닌 석기와 도기로 만들어 졌으며, 굴곡을 띄는 형태와 돌출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도자기를 시대에 따라 분류하자면, 한국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주로 나타났다. 그 양식으로는 고려 시대 중기를 풍미한 청자, 고려의 원 간섭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나타난 분청사기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유행한 백자 등이 있다. 고려청자의 대표로 꼽히는 국보 68호 ‘청자상감운학문 매병’은 13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이다. ‘청자상감운학문’은 청자에 구름과 학 무늬를 상감하는 기법을 뜻하며 12세기 상감청자가 등장했을 무렵부터 꾸준히 나타났다. 매병은 반구형의 입은 작으며, 짧고 좁은 목 아래로는 벌어진 어깨에서 굽까지 내려오는 S자 곡선의 형태의 몸체를 가진 병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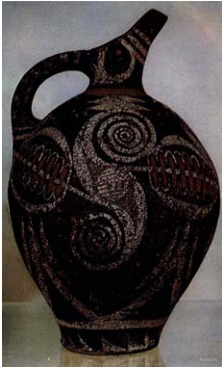
분청사기는 분청회청사기의 준말로 청자와 백자 사이의 과도기 형태의 도자기이다. 회색 혹은 흑회색의 태토 위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하는 기법으로 만들어지며, 형태상으로는 청자에 비해 안정적으로 실용적인 모양으로 변화하였다. 분청사기는 조선 전기까지 유행하다가 16세기 이후 표면에 무늬를 넣기보다 백토 분장이 주가 되면서 백자로 변모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검소함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순백의 백자가 제작되었다. 그 중 ‘입호 형태의 백자 항아리’는 임진왜란 이전에 주로 보이던 모양으로 입이 밖으로 나와 있고 목이 짧으며 몸체가 긴 것이 특징이다.

서양의 지중해 지역의 도자기 중 카마레스, 그리스 비잔틴 도기가 고대의 대표적인 도자기 양식의 예시이다. 카마레스 도기인 ‘소용돌이 문양의 항아리’는 입 주구가 작고 몸체는 원형이며 손잡이가 달려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주류와 물을 옮기는 용도에 알맞게 제작된 것이다. 그리스 도기 ‘적회식 크라테르’는 대형 술잔의 형상으로 윗부분은 넓고 몸체는 높은 모양새에 양 손잡이가 달려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연회석에서 술과 물을 혼합하는 데 사용되었다. ‘암포라’는 두 개의 손잡이를 의미하는데, 그 이름대로 원통형 목 부분에서 몸통에 걸쳐 세로로 손잡이가 달려 있다. 이것은 물과 기름 등을 담아두는 용도로 쓰였다. ‘레키토스’은 기름이

나 의식용 향유를 담는 그릇이다. 머리 부분은 짧으면서 목 부분은 가늘고 길며 배는 볼록하다. 한 개의 손잡이가 수직으로 달려있으며 받침대 부분은 둥글게 되어 있다. 비잔틴 도기인 ‘샹블르베 장식 접시’는 식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접시 안 부분을 스그라피토(Sgraffito)기법으로 장식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 표 1 〉 동서양 도자기 형태

시기	동양	시기	서양
고려 12세기		그리스 3-4세기	
조선 14-15 세기		비잔틴 12-13 세기	
		카마레스 16-18 세기	

Ⅲ. 작품 제작 및 해설

1. 작품 계획

본 연구는 두 문화의 충돌과 공존을 형태와 그림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형태는 동서양의 도자기로 국한시켰으며, 이때 동양의 문화는 전통적인 한국의 도자기로, 서양은 그리스 도기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또 형태들은 충돌, 반복, 공존으로 분류된다.

첫째, ‘충돌’은 각각 동서양의 문화를 도자기 형태로 보여준다.

둘째, ‘반복’은 측면으로 절단시킨 동서양의 도자기 형태를 반복시켜서 표현하였다.

셋째, ‘공존’은 동서양의 문화를 동서양의 도자기의 형태로 보여주며 두 형태를 결합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그림은 융합되는 과정을 자연적인 지층운동에 비유한 것으로, 서로 다른 지각판이 충돌하면서 끓고, 녹는 과정을 지나 지층을 이루기 전까지의 과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문화의 충돌과 공존을 동서양의 도자기 형태를 드레인 캐스팅 방식으로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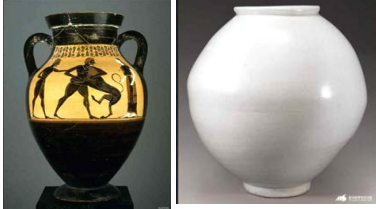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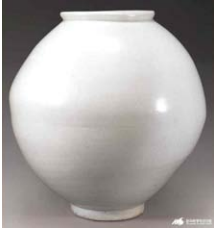





둘째, 1차 소성된 형태 위에 지각, 마그마 현상을 추상적으로 재해석하여 그린다.

셋째, 그림은 모노톤으로만 보여줄 것이며, 강약과 선과 선이 면을 만들면서 명암을 표현한다.

넷째, 다양한 선과 명암을 연출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세라믹 펜슬(Ceramic Pencil)외에 직접 제작하여 같이 사용한다.

다섯째, 그림이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 핸드페인팅용 투명유의 비중에 물을 1.7배 추가해서 시유하며, 1250℃에서 산화 소성한다.

〈 표 2 〉 동서양 도자기 형태 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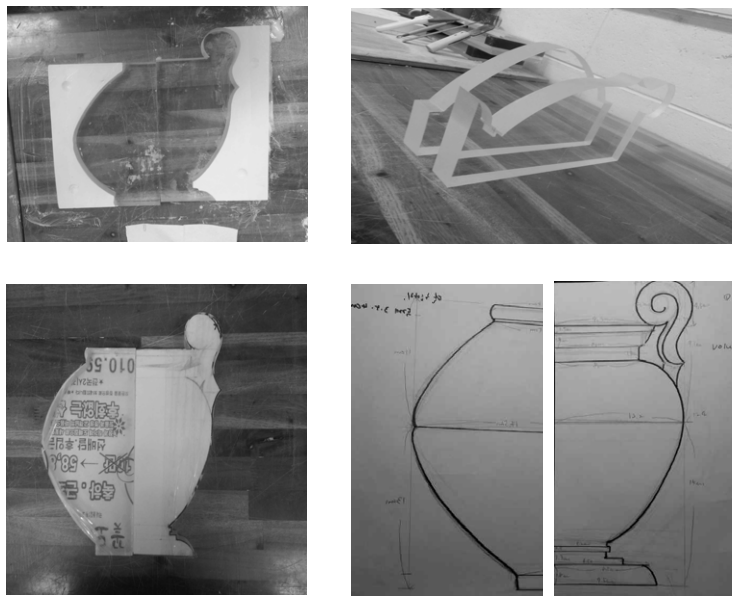
이미지	설명	형태
	<p>직사각형의 규격 안에 동서양의 도자기인 암포라, 달항아리를 Negative, Positive 방식으로 표현.</p>	
	<p>동양의 문화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문화를 절반만 보여주는 것. ‘달 항아리’ 형태의 한쪽면의 단면으로 표현.</p>	
	<p>서양의 문화만을 표현한 것으로 문화의 한쪽 면을 보여주는 것. ‘암포라’ 형태의 한쪽 면을 단면으로 표현.</p>	
	<p>마름모 형태의 규격 안에 그리스 도기, ‘레키토스’를 Negative와 Positive 형식으로 표현.</p>	

2. 제작 과정

1) 원형(Shape)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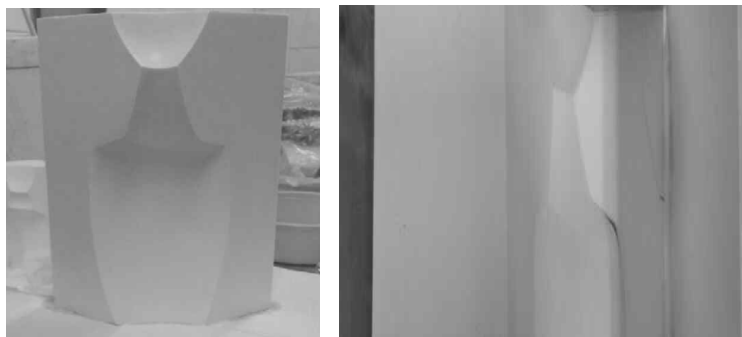
문화의 혼종성을 대변하는 동서양의 도자기는 원형 제작 방법에 따라 A, B, C타입으로 제작된다.

[도 10]은 형태를 그린 후 아크릴 컷팅하여 원형을 제작 한 A타입 원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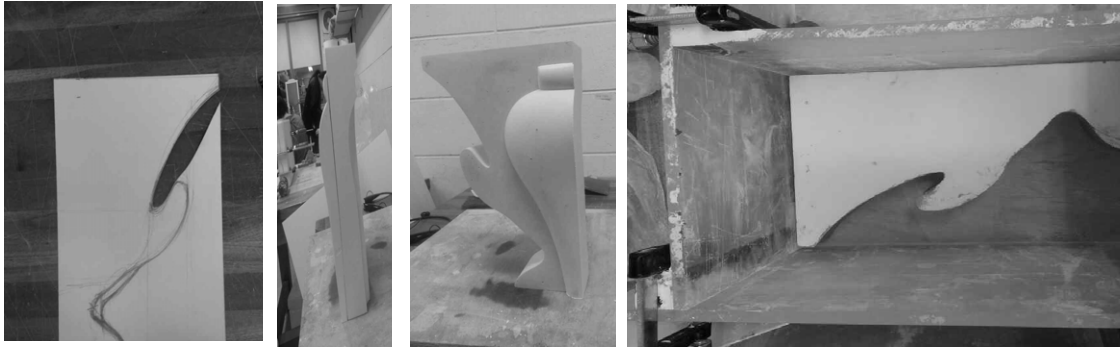
[도 10] 도안 및 아크릴 컷팅, A형태 원형

[도 11]은 직선과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 우드락 5t로 1차 원형을 제작한 후, 석고로 2차 원형을 제작한다. 마름모 규격 안에 도자기의 형태를 임의로 그린 후 선에 맞춰서 조각하는 것이 B형태 원형이다.



[도 11] B형태 우드락, 석고 원형

C의 형태는 앞의 B와 유사한 방법으로 폼보드와 우드락 10t로 1차 원형을 제작하지만 곡선적인 선의 면을 흙으로 부분 제작하고 완성된 1차 원형을 가지고 앞의 B형태처럼 석고 원형을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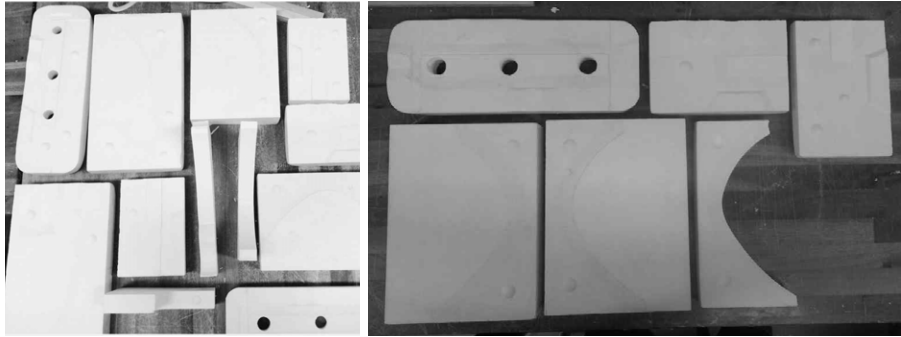
[도 12] C형태 우드락, 석고 원형

2) 석고형 몰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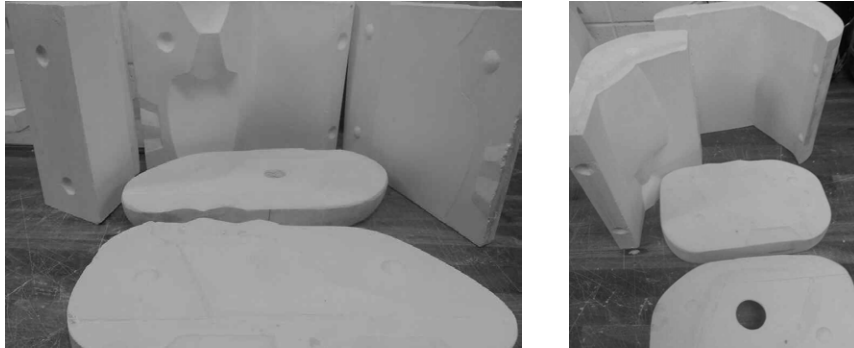
완성된 석고 원형을 가지고 16)드레인 캐스팅 몰드를 제작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석고는 CH석고로 균일한 흡수성이 뛰어나며 기존의 A급 B급 석고를 사용할 때 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도 13, 14, 15]는 A, B, C 형태의 몰드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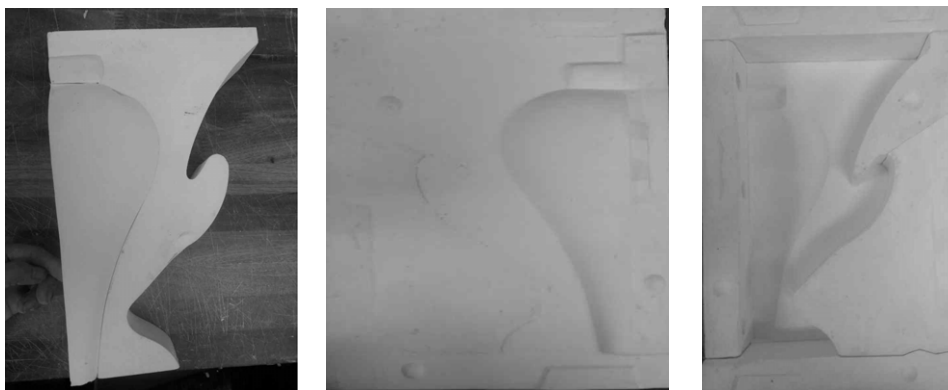
16) 드레인 캐스팅은 슬립캐스팅 몰드 형식 중에 하나로, 일반적으로 머그컵을 제작할 때 사용 하는 방법이다. 드레인 캐스팅은 건조된 몰드에 슬립을 주입한 뒤 일정 시간에 부어 내는 방법으로 시간에 따라 흡수되는 수분으로 형성이 되는 두께가 달라진다.



[도 13] A형태 몰드



[도 14] B형태 몰드



[도 15] C형태 몰드

3) 소지

본 작업은 현대소재의 울트라 소지 ULV-306번, ULV-85번 소지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이장주입 방식을 드레인 캐스팅기법을 사용하여 이장 비중을 1750g에 맞추어 114%확대하여 제작하였다.

울트라 소지는 산화소성하기에 적합한 소지로 같은 제조사에서 나왔어도 번호에 따라 특성이 다르다. 앞에 사용했던 ULV-306번은 점력이 좋으며, 세라스퍼스(CF44)를 2~3스푼 넣을 때 이장으로서의 상태가 용이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흰색 소지이다.

ULV-85번 소지는 ULV-306번보다 백색도가 더 좋으며, 석고와 같은 차가운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는 소지로 색상과 그림을 올리기에 적합하다. 단점은 일반적인 해교제의 양보다 더 주입하지 않으면 같은 수축률로 제조 하였어도 이장 주입하기에 용이하지 못하게 유지가 된다.

4) 성형

(1) 석고몰드 주입

주입을 하기 위해서는 몰드를 만든 후 건조실에 2일 정도를 건조한다. 건조된 석고에 만들어진 슈퍼화이트 이장을 주입한다. 이때, 기물에 따라 주입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A몰드는 15-20분, B몰드는 30분 C 몰드는 45분 주입 후 뒤집는다. 이때 주입구가 작고 크기가 커서 이장을 부을 때 석고 내에서 압력이 가해져서 형태가 틀어질 수 있는데 천천히 뒤집어주면서 주입구에 빨대로 공기를 주입한다.

(2) 건조 및 접합

A형태는 2시간 후, B몰드는 4시간 이후, C몰드는 다음날 탈형을 한다. 탈형된 각각의 형태는 석고판에 먼저 반건조 시킨 슬립 판을 주입구에 맞는 크기의 원의 형태로 재단하여 접합한다.

접합된 기물을 소지 내의 수분을 일정하게 맞추면서 건조시키기 위해 분무기로 물을 뿌린 신문지를 나무판이나 서고판 위에 올린 후에 비닐을 덮어서 천천히 건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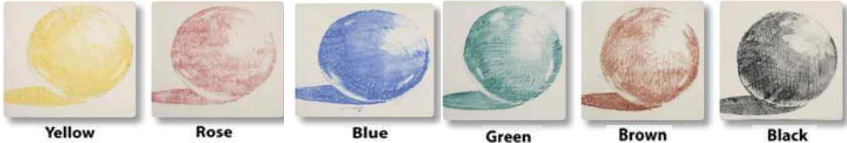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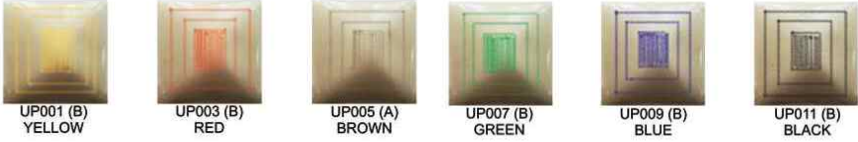


5) Underglazed Pencil

(1) 시판 제품

시판에서 구입 가능한 세라믹 펜슬(Ceramic Pencil)은 5가지이다. 그 중 대표적인 제품은 Hobby Ceram과 Amaco로 두 제품은 동일하게 12색으로 구성되어있다.

세라믹 펜슬(Ceramic Pencil)은 색상에 따라 소성되는 온도가 다르다. 검정, 파랑, 초록색은 Cone10에서 갈색, 노랑, 핑크색은 Cone5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표 3 > Underglazed Pencil

제품명	사진
Kentucky mud works (10색)	
Amaco (12색)	 Yellow Rose Blue Green Brown Black
chrysanthos (6색)	 UP001 (B) YELLOW UP003 (B) RED UP005 (A) BROWN UP007 (B) GREEN UP009 (B) BLUE UP011 (B) BLACK
Choxil (10색)	
Hobby Ceram (12색)	 3119 3120 3121 3122 3123 3124 3125 3126 3127 3128 3129 3130

(2) 제작 및 실험

기존의 세라믹펜슬은 세밀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적합하지만 소묘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명암의 차이를 보여주기에는 단편적이다.

이런 연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질감을 보여주기 위해 세라믹 펜슬을 제작하였다.



세라믹용 펜슬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산화물, 소지, 안료란 재료가 필요한데 건조된 재료들은 배합되기 전에 80mesh 체에 걸러낸 후 섞여진다.

검정색 펜슬은 기본 안료인 검정색 외에도 산화물간의 화학 반응에 의해 검정 색상 만들 수 있다.¹⁷⁾

< 표 4 > Underglaze Pencil Base Data

성분	Base Data I	성분	Base Data II
Ball Clay	50	Ball Clay	50
Potash Feldspar	25	Potash Feldspar	25
Flint(Quartz)	25	Flint(Quartz)	25
Bentonite	5 %	Macaloid	5 %
Colorant	15 %	Colorant	15 %






< 표 5 > Underglaze Pencil 실험 I

성분	Test 1	Test 2
Ball Clay	5 2.5 2.5	
부여장식		
프리트		
벤토나이트	1 %	
산화구리	1 %	2 %
규석	1 %	
		





17) CeramicDaily [Underglaze Users Guide] pp. 21~22.

< 표 6 > Underglaze Pencil 실험 II

성분	1	2	3	4	5
Ball Clay	5				
부여 장식					
규석					
벤토나이트	0.5%				
Colorant (Black)	1%	3%	5%	7%	10%
Sodium Silicate	0.1%				
					

성분	1-1	2-1	3-1	4-1	5-1
Ball Clay	5				
부여 장식					
규석					
벤토나이트	0.5%				
Colorant (Black)	1%	3%	5%	7%	10%
Sodium Silicate	0.1%				
					

< 표 7 > Underglaze Pencil 실험 III

성분	1	2	3	4
Ball Clay	5			
부여 장식	2.5			
규석	2.5			
벤토나이트	0.5%			
Colorant (Black)	2.2 %	2 %	1 %	1.5 %
(Cobalt)	2 %	1.5 %	1 %	1.5 %
(Chrome)	1 %	1 %	2 %	1 %
(Iron Oxide)	1.8 %	1.5 %	2 %	1.5 %
Sodium Silicate	0.1%			
				



[도 16] 몰드 및 세라믹 펜슬 제작

6) 장식

본 작업에서 대립하는 양쪽 문화를 동서양의 도자기의 형태 위에 두 문화의 충돌을 표현하기 위해 지각현상에 비유하여서 표현하였다.

지각현상은 한 세기의 층을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지각판이 충돌하면서 끓고 식는 과정을 반복되면서 새 지층을 만들어 내듯이, 문화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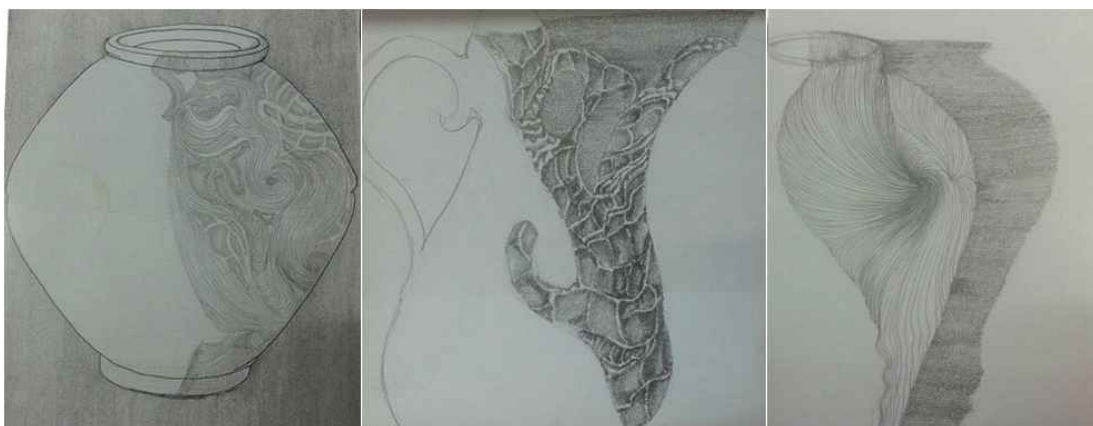
문화간의 반복되는 충돌이 융합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

문화간의 충돌을 나타내는 이미지는 용암의 끓고 식은 모습을 가지고 표현하였으며,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흘러가는 흐름과 충돌에 중심을 두어서 나타냈다.

용암의 흐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오는 모습이 기본인데, 그리는 형태를 경사가 있는 관점에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의도하여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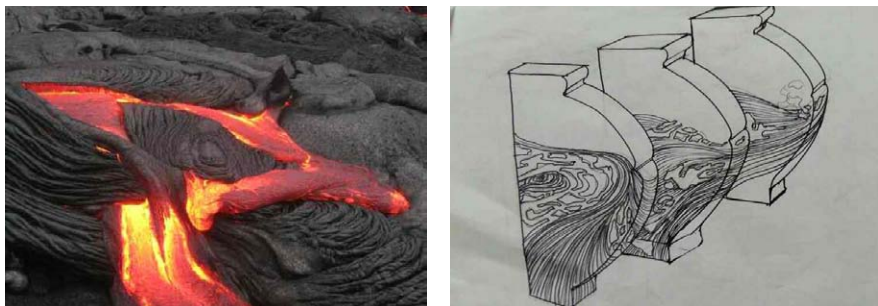
[도 17] 용암의 이미지



[도 18] 용암의 이미지 변용 및 Sketch

표면 장식은 용암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스케치 과정을 거친 후 1차 소성 된 기물에 장식하는데, 초벌 된 기물을 사포질을 한 후에 스폰지로 기물을 닦아내고, 먼지가 제거된 기물 위에 준비한 C.M.C물을 평붓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준다.

이때, C.M.C는 기물의 강도를 주는 요인으로 사용이 되지만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 건조시킨 기물 위에 그림을 그릴 때 펜슬의 원료를 고정시키는 재료이기도 하다. C.M.C를 2~3번 반복하여 바른 뒤 세라믹 펜슬(Ceramic Pencil)의 어두운 명암을 낼 부분을 파스텔 사용하듯이 칼로 긁어낸다. 형성된 가루를 손으로 문질러서 Smudging 효과를 연출한다. [도 20] 그 위에 그릴 그림을 연필로 도안을 그린 후에 제작한 세라믹 펜슬과 구입한 펜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도 19] 이미지 선택 및 스케치



[도 20] C.M.C 사용 및 Ceramic Pencil 그리는 과정

7) 연마

1차 소성된 기물은 Ceramic Pencil을 사용하여 표면장식을 하는 것과 무유 소성 후 연마를 하는 방법으로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표면장식을 한 기물들은 1차 소성 후 3M 스폰지 사포를 가지고 사포질을 한 후에 스폰지로 기물을 닦아낸다. 이때 사용되는 사포는 입도에 따라 표면을 정돈할 수 있는데 2가지 PN2602로 사포질을 한 후에 섬세한 연마를 위해 PN2600으로 사포질을 하였다.

먼지가 제거된 기물 위에 준비한 C.M.C물을 평붓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준다.

앞에서 2가지의 이유로 사용이 된다면 연마에서 C.M.C는 기물의 강도를 주는 요인으로 사용이 된다. 표면처리가 된 기물들은 2차 소성을 한다.

최종적으로 소성된 기물들은 흐르는 물에서 4단계로 연마 하는데, 천사포 #220 ,3M 사포 #400, #600, #1200을 가지고 연마하였다.

〈 표 9 〉 3M 스펀지 사포

제품명	입도(#)
PN2600 Micro Fine	#1200 ~ #1500
PN2601 Ultra Fine	#800 ~ #1000
PN2602 Super Fine	#320 ~ #600
PN2604 Fine	#240 ~ #320

8) 소성

건조된 기물들은 1차 소성과 2차 소성 하여서 완성이 되었는데, 이때 형태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전한 캔버스가 필요한데 이런 강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900도의 온도에서 1차 소성을 한다.

초벌이 된 1차 기물들을 깨끗이 2차 사포질을 한 후 스폰지로 깨끗이 닦은 뒤, 세라믹 펜슬(Ceramic Pencil)을 가지고 표면 장식을 한 후에 시유를 한다.

형태적인 조형미를 부각하기 위해 표면 장식이 되지 않은 것은 무유로 1250도에서 2차 소성을 마친다.

3. 작품 해설

[작품 1] Amphojar

[작품 1]은 동서양의 문화를 동서양의 도자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형태를 선택할 때에 있어서 형태의 실루엣이 대립할 수 있는 형태를 사용하였다.

동서양 도자기의 형태는 암포라와 달항아리로, 달항아리는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도자기로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정서를 잘 표현하였으며, 부드럽고 단정한 형태는 우리나라의 멋을 보여주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서양의 문화를 선택 하였을 때는 문화의 뿌리가 되는 그리스 로마의 맥에서 차용하고자 하였다. 그리스의 도자기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화만큼이나 역사를 기록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그리스의 도자기들 중에서 암포라를 선택하였는데, 암포라는 주류의 용도로 만들어진 도자기로 목이 긴 화병의 모습에 2개의 손잡이가 부착된 모습이다. 굴곡의 대비가 뚜렷한 암포라의 형태는 달항아리의 형태와 같이 사용하였을 때 형태적인 충돌을 보여주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작품 1] Amphojar

80×80×140 mm

Porcelain, Slip Casting

두 형태의 대비와 충돌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모습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절반만을 가지고 표현하였다. 두 형태는 직사각형이란 공통된 규격 안에 표현하였는데, 형태의 곡선적인 대비를 나타내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규격화 된 두 형태는 Negative와 Positive의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형태를 반복적으로 나타내었을 때, 대칭적, 비대칭적인 균형의 구조로 표현할 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두 형태는 Negative와 Positive의 배열에 따라 복합적인 비대칭 균형이 되기도 하고 체계적인 균형의 반복으로도 보이게 하였다. 이렇게 두 형식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따라 균형감 잡힌 구성으로도 불균형적인 구성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작품 2] Coexistence III

[작품 2]은 앞의 [작품 1]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기인 레키토스의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레키토스는 그 시대에 목욕탕과 체력단련장 그리고 장례식에서 기름병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레키토스는 부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곡선 역시 간결한 선이 구축적인 형태를 보여주기 적합하여서 사용하였다.

차용된 형태는 단면으로 마름모의 규격 안에 표현되었다. 또 네가티브(Negative)와 포지티브(Positive)형식으로 오목하고 볼록한 형태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

[작품 2]는 앞의 작업보다는 작게 제작하였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작품들과도 상대적인 크기 차이를 줌으로써 형태에 집중하기보다는 반복되는 작은 개체들이 많은 객체를 이루면서 군집화 되었을 때 하나의 객체로 느껴지게 한다. [작품 2]은 형태가 작지만 군집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조형적으로 큰 형상을 바라봤을 때와 같은 규모감을 느끼게 한다.



[작품 2] Coexistence III

45×45×90 mm

Porcelain, Slip Casting

[작품 3,4] Coexistence IV-1, Coexistence IV-2

[작품 3,4]은 [작품 2]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기인 레키토스의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앞의 [작품 2]와 같은 시작이지만 크기의 변화에 따른 규모감의 차이를 주었다. 또 같은 형태이지만 크기에 따른 형태의 볼륨감과 간결한 직선과 곡선을 잘 보여줄 수 있었다.

[작품 3,4]은 1차 소성된 형태위에 세라믹펜슬 (Ceramic Pencil)을 가지고 표면 장식을 하였는데, 이때 그린 패턴은 두 문화의 충돌의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지층의 충돌하는 이미지와 용암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작품 3]은 마름모 규격 안에 레키토스의 형태를 네가티브(Negative)와 포지티브(Positive)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끓는 용암이 위에서 밑으로 빠르게 흘러가면서 형태까지 흘러내려가면서 형태를 부분적으로 덮은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Ceramic Pencil을 사용하여 곡선을 반복적으로 중첩시켜서 명암을 주었다.

반복된 곡선은 용암이 흘러 내려가는 방향성과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데, 명암에 따른 변화 때문에 역동적인 흐름을 표현하여서 화산 폭발 당시에 흘러 내려가는 끓는 용암을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었다.



[작품 3] Coexistence IV-1

90×90×180 mm

Porcelain, Slip Casting, Underglazed Pencil

[작품4]은 [작품3]와 같은 형태 위에 표면 장식을 한 것으로, 두 문화의 충돌을 용암의 녹고 부분적으로 식어서 굳은 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 반복되는 형태위에 용암이 연결되어서 흘러가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는데 녹고 식은 용암의 질감적인 충돌을 통해 시각적인 질감의 충돌을 주고자 하였으며, 두 질감의 충돌을 뚜렷한 대비가 되게 하기 위해 Scribble기법과 반복적으로 곡선을 사용하였다.



[작품 4] Coexistence IV-2

90×90×180 mm

Porcelain, Slip Casting, Underglazed Pencil

[작품 5, 6] Coexistence V-1 , Coexistence V-2

[작품 5]은 [작품 3,4]와 같은 방식으로 동양의 문화를 매병으로 서양의 문화를 그리스 도기인 크라테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표현하였다.

매병의 형태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의 형태로 부드러운 곡선의 흐름과 굴곡이 잘 나타나는 형태이다.



[작품 5] Coexistence V-1

50×160×260 mm

Porcelain, Slip Casting,

크라테르는 매병과는 달리 곡선과 직선의 선이 동시에 잘 나타나는 형태로 원래의 용도는 연회석에서 사용되는 대형의 용기로 주로 주류를 담는 형태였다.

앞에 [작품 1]에서 사용되었던 암포라의 형태 역시 손잡이가 2개 달린 모습이었는데, 선택된 그리스 도기는 대체적으로 한국도자기와 형태적인 충돌을 줄 수 있는 형태들을 사

용 하였으며, 손잡이가 부착된 것이 특징이었다.

이렇게 선택된 도자기의 형태의 절반을 가지고 형태를 표현하였는데, 크라테르의 형태 위에 절단된 매병의 형태를 네가티브(Negative)와 포지티브(Positive)형식으로 표현하였는데, 돌출된 형태와 들어간 형태를 (N + N) , (P + P), (N + P), (P + N)로 총 4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소성된 4가지 형태를 비대칭적인 배열로 반복하여서 배치하였는데, 같은 규격인 크라테르의 형태로 동일한 균형감이 보이지만, 배치에 따라 안의 네가티브(Negative)와 포지티브(Positive)형식의 매병이 다른데, 그로인한 리듬감과 아울러 대비감을 작품에서 느끼게 해준다.

[작품 6]은 앞의 [작품 5]와 같은 형태로 위에 [작품5]가 형태를 위주로 두 문화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이면 [작품 6]은 두 문화가 또 다른 문화로 결합되기까지의 충돌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6] Coexistence V-2

50×160×260 mm

Porcelain, Slip Casting, Underglazed Pencil

두 문화의 충돌은 지각과 용암의 끓고 식는 이미지로 비유하였는데, 지각현상이 일어날 때 두 지층이 충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서 중첩되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두 문화의 충돌과 융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서 사용하였다.

화산 폭발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용암은 과거에서부터 신이 내리는 재앙의 메시지로도 표현되는데 모든 것을 태우고 삼켜버리는 그 현상이 인간에게 두려움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문화의 충돌은 어떤 이에게는 이질적인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일 수도 있다. 충돌된 문화는 이전에 있는 존재하는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충격일 수도 있고 멀리 하고 싶은 대상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용암은 계획 하에 천천히 흘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이었으며, 위에서 밑으로 급속도로 흘러 내렸고 지형에 따라 흘러가고 덮어버리는 모습 또한 다 다르다. 용암의 끓고 흐르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색상, 질감, 역동적인 흐름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모습과 질감을 가지고 표현하였다. 질감과 역동적인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 명암대비가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소묘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중에 곡선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중첩시킴으로써, 급진적으로 흘러내려가는 모습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었다. 또 풍부한 선적 명암을 주기 위해 기존 세라믹 펜슬 (Ceramic Pencil)과 제작한 펜슬을 같이 사용하였다.

[작품 7, 8] Culture A , Coexistence I

[작품 7]은 [작품1]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서양의 문화를 도자기에 비유하였다. 또 [작품 7]은 [작품2]와 유사하게 서양의 문화만을 표현한 것이며, 그리스 도자기 블루테 크라테르의 형태를 차용하였다.



[작품 7] CultureA

25×120×250 mm

Porcelain, Slip Casting, Underglazed Pencil

블루테 크라테르는 크라테르와 마찬가지로 연회장에서 주류에 물을 섞어 마시는 용기지만 와형의 형태를 띤다. 이 형태는 마찬가지로 2개의 손잡이가 부착되어있는데, 전체의 형태를 절반만 표현하여서 한쪽의 문화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본 작업에서는 절단된 형태를 단면화 시켜서 직선과 곡선의 대비와 굴곡의 차이 표현하였는데, 이렇게 완성된 형태를 간결하고 정교한 선으로 보여주기 위해 아크릴 레이저 컷팅으로 원형 제작하였다.

1차 소성된 기물 위에 문화 간의 충돌을 나타내는 지층과 용암의 이미지를 세라믹펜슬 (Ceramic Pencil)을 가지고 표현하였는데, [작품7]에서는 용암의 끓고 식은 두 질감의 충돌은 그림 안에서 표현하였는데, 두 질감의 충돌을 보여주기 위해 소묘기법인 Scribble 기법과 곡선을 반복적으로 그려서 나타냈었다. 두 표면의 질감의 대비를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명암의 대비와 다양한 선이 중첩되었을 때 풍부한 양감 또한 나타나는데, 이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기존 세라믹펜슬(Ceramic Pencil)과 제작된 펜슬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2차 소성이 된 크라테르의 형태는 수평 수직을 맞춘 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킨다. 반복적인 형태에서 나타나는 안정감과 규칙성은 도자기 표면 장식된 용암의 질감의 흐름이 역동적이고 리드미컬한 움직임 표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비규칙적인 형식을 바라 봤을 때와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작품 8]은 [작품 7]과 동일하게 서양의 문화를 그리스 도기인 불루테 크라테르에 비유하였다.



[작품 8] Coexistence I

25×130×250 mm

Porcelain, Slip Casting, Underglazed Pencil

[작품 8]은 [작품 7]에서의 절반의 형태를 일렬로 반복하여 보여준 것이면, [작품 8]에서는 [작품 7]과 마찬가지로 1차 소성된 기물 위에 그림을 그리는데, 선택한 흐르는 용암의 이미지를 세라믹 펜슬(Ceramic Pencil)로 표면 장식을 하였는데, 이때 명암의 대비와 시각적인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소묘기법을 가지고 표현하였다.

사용된 소묘기법은 곡선을 반복적으로 중첩시켜서 명암의 차이를 표현하는 것으로, 용암의 흐르는 이미지를 표현할 때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때 질감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지 않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느낌을 반복하면서, 반복된 형태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만, 리드미컬한 분위기를 주었다. 2차 소성된 기물을 일렬로 배열하는 대신에 원의 형태로 배열하여서 표현한다.

[작품 9, 10] Culture B, Coexistence II

[작품 9]은 [작품 7]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자기에 비유하지만, 동양의 문화만을 한국 도자기인 달 항아리로 표현하였다.



[작품 9] Culture B

25×130×210 mm

Porcelain, Slip Casting, Underglazed Pencil

달 항아리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유교사상의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정서를 잘 표현하였으며, 부정형의 둥근 형태가 단정하지만 부드러운 형태이다. 이러한 달 항아리를 절반만 가지고 표현하는데, 절반의 형태를 단면으로 나타내어서 곡선의 부드러운 선을 더 간결하게 보여주려고 한다.

본 작업에서 형태가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면 표면장식은 문화 간의 충돌의 과정을 표현한 것인데, 이때 사용되는 이미지는 용암의 끓고 식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때 반복된 형태를 배열 시킨 뒤 하나의 이미지를 단면들에 나누어서 연결되듯이 표현한다. 녹고 식는 용암의 이미지는 대비되는 질감으로 표현하는데 소묘기법 중에 Scribble기법

과 곡선을 반복하여 표면장식을 하였다.

위에 [작품1~7]까지는 모노톤으로만 용암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는데, [작품 9]에서는 붉은 이미지를 대변하는 난색 중 Y 노랑색을 기면의 바탕에 부분적으로 사용한 뒤 모노톤으로 질감의 충돌을 나타내었다. 노랑과 검정을 색상의 대비가 큰 색상으로 두 질감의 충돌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작품 10]은 [작품 9]과 동일하게 동양의 문화를 한국 도자기인 달 항아리의 형태에 비유하였다.[작품 10]은 형태를 절단하여 절반의 단면으로 표현하였으며, [작품 9]와 같은 방법으로 배열하여서 표현하였다.



[작품 10] Coexistence II

25×120×210 mm

Porcelain, Slip Casting, Underglazed Pencil

위의 [작품 9]은 6개의 기물을 하나의 개체로 표현하였는데, [작품 10]에서는 6개와 8개의 기물로 각각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두 형태는 사용되는 개체에 따라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피의 차이가 다르며, 같은 형태이지만 다르게 그려진 용암의 흘러가는 모습을 표면 장식한 기물은 흐름에 따라 그린 영역에 차이를 주어서 단조로운 형태에 리듬감을 주었다.

IV. 결 론

문화의 혼종성은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현대에 이르러 가까운 일상 속에서도 접할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인터넷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와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타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호불호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은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문화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중심이 모호해질 때 사람은 내면에서 문화의 충돌,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어느 문화권에도 온전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혼종성의 그림자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이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대립을 TCK(Third Culture Kid)을 중심으로 형태와 표면장식으로 나타내어 탐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문화적 대립 형태는 동서양의 도자기로 대변하였으며 동양의 문화를 한국의 도자기로 서양의 도자기를 그리스 도기의 형태를 차용하여서 양쪽 문화의 대립, 충돌, 결합의 과정을 두 문화적 영향을 받은 형태적인 대비를 통해 시각적인 효과와 각 각의 문화로 나타낼 수 있었다

둘째, 형태제작에 있어서 각각의 도자기의 형태에서 나타는 직선적, 곡선적인 선에 따라 석고원형과 아크릴원형으로 제작되어 석고형을 완성도 있게 표현할 수 있었다.

셋째, 표면장식기법으로는 소묘기법(Scribble)과 곡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표현하였는데 이때 장식되는 지각현상과, 융암이미지는 문화의 충돌과 융합까지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며, 문화 간의 대립과 충돌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듯이, 지각현상이 일어날 때 반복되는 충돌은 언젠가는 멈추게 되며 새로운 층으로써 공존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소묘기법에 사용되는 기존 Ceramic Pencil과 실험 및 제작을 통해 다양한 명암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색상에 있어서 단색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적 대비효과가 나타난다.

본 연구자는 작품 작업 과정을 진행하면서 대립과 충돌의 과정을 통해 문화적 공존을 보는 이로 하여금 느끼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작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였다. 다만, 재료의 연구에 대한 시행착오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으로 주어져서 아쉬움이 남았다. 앞으로는 선행 작업을 토대로 형태를 더욱 연구하여서 문화의 혼종성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1] Peter Burke. (2001). 「문화혼종성」, 이음.
- [2] 데이비드. A. 라우어. (2009) 「조형의 원리」, 예경
- [3] 데이비드 폴락, 루스 반 레켄 (2008) 「제3문화 아이들」, 비즈 앤 비즈
- [4] 미스기 다카토시. (2001) 「동서도자교류사: 마이센으로 가는 길」, 놀와
- [5] 수잔 피터슨. (2001) 「도자의 기술과 예술」, 예경
- [6] 유현준. (2008) 「모더니즘 : 동서양 문화의 하이브리드」, 미세훈

학위논문

- [7] 김향미. (2013) TCK의 특성 이론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해외 귀국청소년의 자아 정체감과 문화 간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 한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장순강. (2008) 포스트모던 사진 자화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함선미. (2009) 「모리무라 야스마사의 <서양미술사> 시리즈 분석 : 문화적 ‘혼종성’을 통한 정체성 논의」,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학회논문

- [10] Greenholtz J, Kim J. (2009). 「The Cultural Hybridty of Lena: A Multi-method case Study of a Third Culture Kid」, Elsevier Science B.V. Amsterdam
- [11] Hanes, M. J. (1995). 「Clinical Application of the “Scribble Technique” with Adults in an Acute Inpatient Psychiatric Hospital」,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 [12] Hart, S. M. (2004). 「Cultural Hybridity, Magical Realism, and the Language of Magic in Paulo Coelho’s The Alchemist」, Heldref Publications
- [13] Young, Robert J.C. (2012). Cultural Translation as Hybridisation,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김세원. (2013). 「혼종성과 문화정체성에 관한 소고 : 브라질 ‘트로피칼리아’ 음악 읽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문화연구소
- [15] 박상미. (2014) 「아이웨이웨이 작품에 반영된 체제 비판적 요소」, 한국동양예술학회
- [16] 박정애 (2012) 「하이브리드 미술제작에서 정체성의 형성 : 미술 교육과정에서의 함축성」, 미술과 교육

- [17] 이규명. (2013). 「에이츠와 하이브리드 문화 : 불신의 자발적 중단」, 한국예이츠저널

저널아티클

- [18] Robbin Hopper. (2010). 「Ceramic Decorating Tool Techniques」, Ceramic Daily

웹사이트

- [19] 구글, <http://www.google.co.kr>
[20]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2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22] Amaco, <http://www.amaco.com/>
[23] Ceramic Art Association, <http://www.ceramicartswa.asn.au/>
[24] Ceramic Art Daily, <http://ceramicartsdaily.org/>
[25] Ceramics Today, <http://www.ceramicstoday.com/>
[26] Clay Art, <http://www.potters.org/categories.htm>
[27] Lakeside Pottery, <http://lakesidepottery.com/>
[28] Pinterest, <https://kr.pinterest.com/>

Abstract

A Study of Formative Base on Eastern and Western Cultural Hybridity

Kim, Jiye

(Supervisor Choi, Byung Keon)

Dept. of Ceramic Art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al Hybridity is a phenomenon originated from development of mass media and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nd recently the globalize world and developed internet made accepting other cultures an inevitable choice rather than individual's will. Although experiencing diverse cultures can expand one's thinking, however when there are too much to accommodate and one is uncertain of his main culture, it may cause cultural conflict and identity crisis. Therefore, 'Cultural Hybridity' is a hot issue in Sociology, Arts and Fine Arts.

From the various Cultural Hybridity this research will limit and focus on TCK(Third Culture Kid) and will express cultural conflict and coexistence by showing Eastern and Western culture in shapes and decoration on surface.

Following are the research methods. First,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search on historical background and artist and work of Cultural Hybridity and TCK is done. Secondly, since two cultures are expressed in the shape of pottery, this study researched and adapted the representative pottery shape of each Eastern and Western era. Thirdly, to show the process of cultural collision research was done to develop pattern of moving earth crust by collision of plates and image of collision of stratum and lava, and studied on the techniques and materials. Lastly, Manufacturing Work of Art and Explanation is classified into Work Plan, Manufacturing Process and Explanation of Work. Work Plan describes how to transform and express the shape and surface decoration of Eastern and Western culture in detail.

Manufacturing Process is consisted of A, B, C method using respectively plaster,

acrylic and form board and divided to experimenting and manufacturing plaster mold making, clay, forming and ceramic pencil. After bisque fired it will either be surface decorated or will be gloss fired and polished.

In this study, Eastern and Western culture are expressed in the form of pottery, and combined the negative and positive of the section form in the Geometry shape. Additionally through regular and irregular repetition of unit movement and harmony was shown, and the scribble using the image of collision of stratum and lava and decorative technique on repetitive curved section symbolized the cultural conflict as formative language of collision, repetitive, coexistence which have recently been accelerated by globalization.